기나긴 투쟁-아쉬운 내용성

특별기획 총학생회 1학기 사업 중간평가

폭넓은 학생참여 불구, 의식·조직화 미비 과정상 오류 인정·극복하는 자세 필요

등록금 투쟁은 1988년 10월3일 등록금은 대학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책정할 수 있다는 문교부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의 발표 이후 전국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올해로서 4번째 개강과 더불어 등록금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89년 '대학 자치협의회'를 건설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던 반면 그 성과물에 대한 확실한 실행이 되지 못한면이 많았으며 등록금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등록금 액수에만 한정되는 한계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올해는 개강부터 지난주 대동제까지 등록금투쟁과 맞물려 전개되었던 총학생회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노정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올해의 등록금투쟁은 예년과는 달리 2달 이상의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 5월3일 학교측과 기탄의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금투쟁은 교육재정 확보전은 현 시점(대학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 재정확충을 위한 활동을 상호 전개한다. 교학 협의체 건설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 즉 교수와 학생 현황보고와 학사업무의 차질을 이유로 등록금 고지서를 일방적으로 교지하여 등록금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후 총학생회는 4월13일 비상 학생총회를 열고 중간고사와 수업거부를 결의하고 지난달 14일 서울캠퍼스 본관 점거농성에 들어가는등 5월3일 학생회측과 학교측이 합의서를 교환할때까지 학생들은 3주간의 수업거부와 무려 2주이상의 서울 본관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속에서 총학생회는 그 많았던 유인물에도 불구하고 협상진행과정을 원만하게 공개하지 않고 단지 학교측에 대한 적대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면에 치중하여 등록금투쟁 후반부에 가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조차 혼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등투기간중 여타 사업들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등록금 투쟁기간중 진행된 사업은 4월8일 熊이수배동탄 추모대회 '성남집회'에 참가한 것이 전부이다. 4·3 추모 4·19 기념식 경우에는 행사자체가 무산되었다. 일반학우들의 정치적 의식함가 등투의 관점이었다면 4·3이나 4·19 기념식등의 정치투쟁의 장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점진적인 의식의 성장화를 이끌어 내야 했으나, 이러한 점들이 크나큰 학생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점은 또 하나의 오류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등투에 연이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5월 대동한마당'이 펼쳐졌다. 예년과는 달리 수원캠퍼스 단독으로 치루진 이번 행사는 준비기간의 부족도 있었지만 행사의 반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뿐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과학행회, 동아리 차원의 취부조직들의 준비들이 학술세미나나 문화행사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파나 동아리의 주점설치가 그 주를 이룸 모두가 하나가 뭔다는 대동제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응원대자전' 과 장산곶 때, '단한 교문을 열며'의 영화상영이 등시 치뤄짐으로써 학생들에게 공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행사기획 자체의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일부 행사는 단지 보여주기식의 공연에 그쳐 학생들을 방관자로 전락시켰으며 이로인해 모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치뤄져야 할 대동제가 형식장주변을 기웃거리다 '술 마시고 노는' 단순한 유흥장으로 전락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운동의 대중성이라는 것은 집회에 모인 인원이 얼마인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것 또한 아니다. 대중성이라함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진행되어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들은 이제껏 이뤄놓은 골간체계를 이용, 더많은 학생들을 추동해내어 함께이며 동시에 이의 내용상을 어떻게 채워나가 학생 대중들을 끌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도 다시한번 생각하며, 과정상에 나타난 오류들을 인정하고 반아들이려는 자세와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취재부〉

취재노트

"게시판의 소화불량"

○…우리들의 일그러진 대정

서기1992년, 청와놀이터에서는 전임대장 '노기리'의 특명에 따라 총차니와 영사미가 골목대장 선거에 출마했다. 드디어 선거전은 시작되었네.

영사미 : 나 민주·자유 좋아하는게 내 '본색'을 이번엔 '확실히' 보여줄란다.

총차니:(예의 그 '음흉'거리는 소리로) 지금 영사미 다 공갈치는 기다. 영사미 믿느니 날 믿어라. 영사미는 거짓말쟁이다. 고자질 많이 해봐서 안다.

그렇게 놀이터의 '새대장뽑기' 열기는 깊어만 갔다.

○…초대받지 않은 차의 친국(?)

고환골이 활법 주차로 통삼을 잃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인복위가 뭐지를 봤음이도 출입증 없는 차량의 진입이 잦이질 않기 때문이라나.

노트구 생각하기에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침입하는 행위는 가진 자의 횡포가 아니겠소.

○…특효약 처방전

5월들어 각 게시판이 과다한 음식물섭취로 신음한다하여 노트구 알아보니.

광고물은 늘어만가고 붙일 곳은 한정돼 있으니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런 게시판의 소화불량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분과별안내판 설치라는 두가지 소화제가 특효약이 아닌가 하오이다.

○…남북 합의서 그 이후

최근 페이지 뒤기 피동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기에 노트구 알아보니,

다름이 아니라 요즘 각 대학에 내 걸리고 있는 인공기 때문이라고.

노트구, 작년 합의서에 의해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키로 한것은 알고 있오만.

아직도 인공기만 보면 발발떠는 나학년들을 보면 남북 합의서 이정의 깊은 요원키만 한것같아 실로 가슴이 저며옴을 감출길이 없소이다.

朔風 상호신뢰로 넘어야 할 핵의 장벽

과연 언제쯤 속시원하게 밝혀질 것인가. 북한에 핵무기는 정말 있는 것인가.

또 굳이 무슨 생각으로 세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핵무기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가.

이제 과연 국제기구의 해사찬을 받을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메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던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언론의 단골메뉴로 하루라도 그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섭섭한 지경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차대통령시절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던 때가 있었다. 물론 차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말이다.

그때는 물론 차대통령의 오기가 발동되었다. 북한의 군사력은 커져만가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빌미로 삼아 우리나라에 대해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느니 방위비를 삭감하겠다느니 한면서 핵무통장의 오금줘부를 붙어놓았던 것이다.

그때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신념아래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군사의 우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과 점점 더 벌어져가는데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는 데 있다.

물론 그밖에도 여러가지 북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감, 열등감에 기인한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이유야 어쨌든 이제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봐서 북한은 여러가지 충분한 핵시설도 갖추었을 테고 여건가지 충분한 경험도 축적됐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어떻든 함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것에나 존재하는 이치라고 생각할 때, 이해는 하나 이제 민족의 심장을 겨누는 그 끔찍한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시실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강제사찰을 검토중이라는 등 UN결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해야한다는 등 열변을 토하고 있음을 불해 정말 속이 뒤틀릴 지경이다.

이제 이 문제는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 남북의 수뇌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우리가 해내야 한다.

이제 남북한은 서로를 거냥한는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것이 존재한다면 상호확인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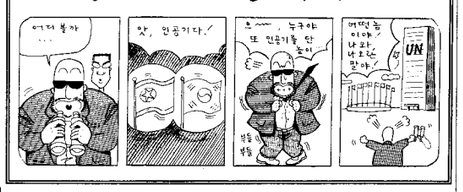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할 때 한쪽이 치명상을 입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재결합해서 산다고 할때 잘못이야 누구에게 있던 간에 두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전도)

도라이N 제 146 회

장 세 찬



신문의 상품화 현상 고쳐져야

—김종림(정외·9)동문을 만나

'86년 8월이 고화언론인 동우회를 동문 2백여명이 모여서 결성됐지요. 당시가 86년 아시안게임 직전이었고 초대 회장은 내가 맡았었지'라고 김종림(정외·9 한국방송공사 관리 이사)동문은 말문을 열었다.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정당,사회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김동문은 그후 20년동안의 언론인 생활을 서술문든 상무이사로 마감하면서 지금의 한국방송공사 관리이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창립 초기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업무적으로 각종 모임 및 행사를 가지려보지요. 지금 회장은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황소웅 동문이 맡고 있지만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워낙 바빠서 정기적인 모임은 그리 자주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각신문사와 방송사 별로 모임을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한 동문들의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하는 바람 또한 잊지 않았다. 우리 동문들의 언론계 진출상황에 대해 '일방송사를 비롯해서 6대 일간지에 동우회 창립초기에는 2백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후배들이 언론계에 들어왔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현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종문은 과거 오랜동안 언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것들을 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언론의 상업성과 기자의 사명감이라고 말하고 과거의 언론사는 사회의 목탁적 역할을 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으며 신문을 단순히 돈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지금은 신문을 파는 물건으로 인식해버려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기자 개개인 역시 사명감보다는 일반 직장과 같은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 생활신조를 묻는 가자의 질문에 '언제나 소박한 세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차체가 어머니이고, 둘째가 고향이며, 마지막 세번째가 친구 바로 동창이라고 생각했요. 경희의 동창은 언제나 영원한 것이니까요.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30여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학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김동문은 현재 총동창회 부회장과 고화언론인 동우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대학생활을 회고하면서 '지난날 경부도 열심이었고, 친구 사귀기에도 게을리하지 않은 나름대로 바쁜 대학생활을 보냈지. 지금의 후배들 역시도 후회없는 대학생활, 모든 것에 적극적이며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활을 보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知〉

1992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각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대 학 원

TEL, 961-0122~3

1. 석박사 과정

2. 모집 과정 및 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심리일문학과 사문과어학과 • 사학과 • 법률학과 • 행정학과 • 경제학과 • 인문방송학과 • 경제학과 • 경영학과 • 무역학과 • 회계학과 통학과 생활학과 • 지리학과 • 화학과 • 물리학과 • 수학과 •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학과 • 의학과 • 치의학과 • 간호학과 • 한의학과 • 약학과 임상약학과 • 기계공학과 • 화학공학과 • 생물공학과 • 전자공학과 •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전자계산공학과 • 산업공학과 • 원경학과 • 소비문화과 유주과학과 • 시홍기술학과 • 농학과 • 임학과 • 조경학과 원예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 체육학과 무용학과 요업공예학과(* 표는 박사과정 설치학과)

3. 원서교부 및 접수:1992년 6월1일(월)-1992년 6월5일(금)

4.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1992년 6월20일(토) 오전10시(본 대학원)

5. 시험과목: 가)석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나)박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제2외국어(영문, 사학, 한학학과에 한함)

• TOEFL시험성적 :인문, 사회, 자연, 이공학 계열 550점 이상, 예술계열은 450점이상 취득자는 영어시험면제(최근2년 이내 취득자)

Ⅱ.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

1. 모집학과: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2.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전공필기 시험 및 면접시험과 비슷한 자 100점으로하며 석박사 과정과 별도 시행

Ⅲ. 연구생

1. 모집학과:석박사 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별도기준에 의거 선발

경영대학원

(야간 TEL, 962-9688, 961-0126~8

1. 모집학과 및 과정:
석사, 연구 및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학과(인사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세무관리학과(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 각 전공)
노사인력관리학과(인적자원관리, 노무관리, 노동경제, 노사관리, 노동경제 각 전공)
환경경영학과(환경자원개발, 오염경영, 환경홍보, 사업경영 각 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행정 각 전공)
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관계법, 국제경제 각 전공)

2. 원서교부및 접수:
1992. 6. 3(수)-6. 10(수) 16:00

3. 시험일시및 장소: 1992. 6. 20(토) 14:00
본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영어, 일반논문, 면접, 경력)
2) 연구원 최고경영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전:
1) 학중국가고시 최종학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 수석합격자와 차학중 각 학과 실제 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교육대학원

(일반계, 체육계) TEL, 964-6674, 961-0134

1. 모집과정 및 학과:
I) 교육학석사과정
가. 일반계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민윤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업교육, 정가계산교육, 요양공예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실업교육
나. 체육계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생물교육, 공업교육, 전자계산교육, 농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2) 연구과정:석사학위과정에 준함.
3) 보충전형:각 전공별 약간명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5. 3(수)-6. 10(수) (09:00-17:00)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6. 20(토) 10:00(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전공, 면접
2) 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1) 학식 고시자는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학위교환 및 교육행정 전문직에 추사하는 자와 교직과목이수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단, 체육지도에 탁서한 자격증에서 통계)
2) 본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동일한 전공분야이어야 함)
3) 교육학 석사과정 이수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 대학교의 해외 자매교에 유학추천을 받을 수 있음.
4)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중 소정의 전공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거나 승학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표는 대학원의 전공명 앞에는 교육대학원의 준말이라 함.

평화복지대학원

TEL, 233-2992, 234-0220(0346)65-7621~8

1. 모집학과 및 전공:석사과정 2년 6개월, 학인 평 화학과복학, 동화학과, 국제 및 정책학과, 국제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2. 입학자격: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등해자

3. 전형방법:
①면접시험 및 논문(국문)
②표준점수(3)학의 입학자격 한하여 실시
③2차 면접 및 제작기수(3)학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장학혜도:
①제학중 학비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②기숙사(상경사한) 숙식에 필요한 숙식 장학금을 지급함

5. 주지시킬:
①본 대학원은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②2학는 정의고 합을 한치도로 함
③교수진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④ 21세기의 다양화, 전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인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
⑤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⑥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입학후 4학기중 인 필히 상정시한에서 생활하여야 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①기간:1992. 6. 15(월)~6. 27(토)
②접소:본 대학원(경기도 광명)

7. 전형기간 및 장소:
①시험기간:1992. 7. 2(목)~7. 8(수)
②장소:본 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야간학):지역개발행정학과, 경영정보학과, 무역정보학과, 회계정보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계산학과, 정보통신학과, 저이개수학과, 산업공학과, 식품가공학과

나. 최고경영 및 경영자과정(정3개)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년 6월10일(수)-6월18일(목)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년 6월27일(토) 13시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평기고사(상식, 전공기초), 면접
나. 최고경영 및 경영자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가. 동문 및 지일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고려함.

6. 본 대학원 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전화:(0331)280-2130, 2131

신문방송대학원

(야간 TEL, (02)967-7083(교)961-0660, 0561

1. 모집학과 및 과정: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광고전공)
2. 광고학과(PR, 광고전공)
3. 출판잡지학과(출판잡지전공)

나. 언론연구자과정:고급이상의 학력소유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 한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6. 3(수)~6. 10(수)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본 대학원(서울대학 5층)교무과

4. 시험일시 및 장소:1992. 6. 20(토) 오후 2시(본 대학원 제육관 5층)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영어, 전공, 면접
나. 연구 및 언론연구자 과정:서류전형 및 면접 (경력참조)

6. 특전:
가. 수석합격자는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 재학중 학과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을 지급함
다. 광고동문은 전기 후기 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라. 출판잡지전공의 성적우수자에게는 필수출판 장학금을 지급함.
마. 언론계종사자중 우수경력자에 한하여 특전을 주어짐.